



◊불교여성개발원 복지분과 교정위원들의 교화활동 모습. 사진제공=불교여성개발원

사형수 살린 여성불자들

불교여성개발원 교정위원 5명 재소자와 결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5명과 결연을 맺고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여성개발원 복지분과의 황명숙(前 한양대 교수), 김필연(복지분과장),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윤숙옥 씨 등에게 최근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수형 기간동안 조금씩 모은 영치금 150만원을 교화활동에 써 달라며 내놓았다.

김천교도소에서 청소년 교화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서울구치소의 사형수 교화활동을 병행하게 된 것

갔다. 한 수형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함께 49재를 지냈고, 가족이 입원하면 문병을 가고 어버이날이나 자녀의 생일에는 축하 카드를 보내기도 했다.

교화활동을 시작하지 2년째인 교정위원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수형자들의 출소 후의 생활이다. 연고 없는 사람일 경우 쉽게 범죄에 빠져들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정위원들은 "지역 사찰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02)722-2101, 후원계좌:국민 059-01-0535-291(예금주 이인자)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기도회향 며칠 뒤 김인제씨 무기감형

김씨 "영치금 150만원 교화에 써달라"

은 서울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과 25년 넘게 교화활동을 해 온 노병설 거사의 권유 때문이다. 네 명의 교정위원들은 두 명씩 한 팀을 이뤄 매주 토요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함께 경전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형자 가족들과도 만남을 이어나

박종철 열사 인권상 제정 1월 셋째주 기념주간으로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가 '박종철 열사 인권상'을 제정하고 조계사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인권위는 8일 '2003년 불교인권위원회 사업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하고, 1월 셋째 주를 '박종철 열사 주간'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매년 6월 10일에 개최된다. 또한 인권위를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산하 국제 불교 엠네스티 불교본부로 추진하고, 108명 청년재가자들의 모임인 불교인권 청년회를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오전 11시 30분 조계사에서 열리는 '故 박종철 열사 16주기 추모제'는 박형규 목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상범 교수(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애도사, 진관스님 추모시 낭독 순으로 봉행된다.

남동우 기자

보건복지부 배아복제연구 제한적 허용추진

인간복제 불교적 해명 시급

보건복지부가 복제연구문제에 대해 선별적 허용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불교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교리적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9일 보건복

지상임위원회에서 "난치병 등 치료용 체세포 배아복제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내달 중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체세포 복제에 대한 연구에 반대해왔던 기존 입장을 바꿔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명시적 금지에 반대해왔던 과학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한 것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생명윤리법안 제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당수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은 인간복제 및 배아복제 문제에 대한 교리적 연구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불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명우 기자

경주 남산 대대적 정비·보존

올부터 50년간 사유지 매입·발굴 사업

경북 경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경주 남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존과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2052년까지 50년에 걸쳐 1천1백40억원을 투입해 경주 남산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발굴조사와 유적지 정비, 남산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 85년 경주남산이

사적 제 311호로 지정됐으나 사유지가 많아 보존대책 수립이 어려워 17개 지구 1백17만9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사들이고 28개 지구 39만여 평방미터를 발굴 조사할 계획이다. 또 폐담과 폐사지, 유적지 등 2백 84곳을 정비하며 17개 노선의 탐방로를 55.6km길이로 개설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장기계획으로 남산전시관 건립과 이정표 완비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생명·평화·환경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

불교, 기독교 등 5개 종단 성직자들이 노무현 당선자를 축하하고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염원하는 '생명·평화·환경을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를 개최한다.

22일 오후 1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대성당에서 열리는 이 기도회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용화사측과 합의 없는 미륵산 케이블 강행 안해”

김동진 통영시장, 기자와 일문일답

김동진 통영시장이 적어도 용화사측과 합의 없는 더 이상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7일 조계종 총무원 방문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적어도 용화사측과 합의 없는 더 이상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양

산스님은 "용화사와 통영환경운동연합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총무원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화사 주지 선곡스님은 "시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면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오후법회 시청 3배 증가

불교TV 시청률 조사

불교텔레비전(사장 이수덕)의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오후 2시의 시청률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 전문회사인 TNS 미디어 코리아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03년 1월 5까지 실시한 시청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편 후 전체 시청률은 최고 30%, 평균 15% 이상 증가했으며, 50대 이상의 남녀 시청자는 각각 50%와 15%이상 늘어났다.

또 월간 시청률은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이, 시간대로는 낮 12시와 밤 10시가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령 기자



목탁소리

한명우 (취재1부 차장)

불교계 용비어천가

8일 서울 하립각에서는 노무현 당선자 내외와 20여 종단의 지도자급 스님, 재가신도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기원 신년 하례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는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인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민주당의 불자 의원 모임인 연등회가 마련한 것이

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회는 이상한 분위기로 흘렀다.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빌며, 모든 정성과 힘을 모아 실어드리는 불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또 행사 사회를 보던 조계종 총무원의 한 국장스님은 노 당선자의 이름으로 '노력하는 대통령, 무소유의 철학을 실천하는 대통령, 현명한 대통령'이라는 즉석 삼행시를 지어 낭독했고 참석자들은 연이어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행사장 분위기는 마치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온 듯한 착각이 들

게 할 정도였다. 조선 세종 때인 지 등이 조선왕조의 창업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가 따로 없었다.

<정법여취경>에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권력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책이 있다. 굳이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왕에게 수행자의 처소를 찾아 예경하고 법을 구하게 하라'는 <불소행찬>의 가르침대로 하면 된다.

종교와 정치는 마땅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시대 흐름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그 방법은 정치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념을 통해 정치를 순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불교계 지도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권력자 앞일수록 담당해야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다. 그렇게 할 때 '인천사(人天師)'가 될 수 있다.



◊"반지의 제왕은 없나요?" 수색동 대립아파트에 사는 박진만(14) 군이 10일 은평구립도서관 이동도서관에서 빌려간 책을 반납하고 있다.

인덕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위탁 은평구립 도서관 관내 순회 운행

"안방 도서관 시대를 연다." 은평구립도서관(복지법인 인덕원 위탁, 관장 성운이) 2일부터 새로운 '이동도서관'을 선보인다.

지난해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온 구립도서관은 2일부터 33인승 버스를 개조한 도서관 차량을 운영, 한결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가을 서울시청 조사에서 시민 만족도 1위 도서관에 선정된 은평구립도서관은 그 포상금으로 받은 1억 2천만원을 이동도서관 차량 마련에 투자한 것이다. 구립도서관은 격주로 차량을 운행한다. 이용문의는 02-385-1671

강유신 기자